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2022년 5월 19일 | 선임조사역(팀장군) 김찬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447천 km ² 	인구 34.6백만명 (2021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지속, 서방과의 협력 확대 
GDP 692억 달러 (2021 ^e) 	1인당 GDP 2,002달러 (2021 ^e) 	통화단위 Som 	환율(\$기준) 10,609 (2021 ^e) 

- 우즈베키스탄은 금, 면화,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여 동 자원들과의 연관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13억 달러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여 사회, 보건 의료 등에 지원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대응은 OECD, IMF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2017년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외환자유화 등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1년 10월 대선에서 80% 수준의 득표율을 통해 재선에 성공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러시아 및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WTO 가입 추진 등 대외협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미국·독일·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 29 수교 (북한과는 1992. 2. 7)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8),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법공조조약('04), 사회보장협정('06), 외교관 여권사증면제협정('09), 군사비밀보호협정('12), 관광협력협정('13)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2,338	1,704	1,879	자동차 부품, 자동차, 원동기·펌프, 합성수지
수 입	20	18	22	펄프, 면직물, 면사, 한약재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437건, 832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4.4	5.4	5.7	1.9	7.4
소비자물가상승률	13.9	17.5	14.5	12.9	10.8
재정수지/GDP	1.2	2.0	0.6	-2.5	-4.6

자료: IMF, EIU

경제성장률은 2020년 1.9%로 둔화되었으나, 2021년에는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7.4%로 상승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6년(1.7%)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1.9%)을 기록하였음. 투자 및 수출 감소 등이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부지출 증가 및 건설업 성장은 플러스 성장률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2019년 대비 제조업,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고, 소매판매 및 화물, 여객 운송량도 크게 감소하였음.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1.9% 성장은 세계 평균성장률(-3.3%)이나 신흥국 평균 성장률(-2.2%)에 비해 높으며, IMF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2021년에는 민간소비 증가 및 투자 회복, 서비스업 호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반등(IMF는 2021년 세계 평균 6.1% 경제성장률 추정)과 함께 주요 교역국인 중국 및 러시아의 경제성장(각각 8.1% 및 4.7%)에 따라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음.
- IMF 발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중앙아시아에서 타지키스탄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단위: %

국가명	2020년	2021년 ^o	2022년 ^f
우즈베키스탄	1.9	7.4	3.4
카자흐스탄	-2.6	4.0	2.3
키르기즈	-8.6	3.7	0.9
타지키스탄	4.4	9.2	2.5
투르크메니스탄	-3.0	4.9	1.6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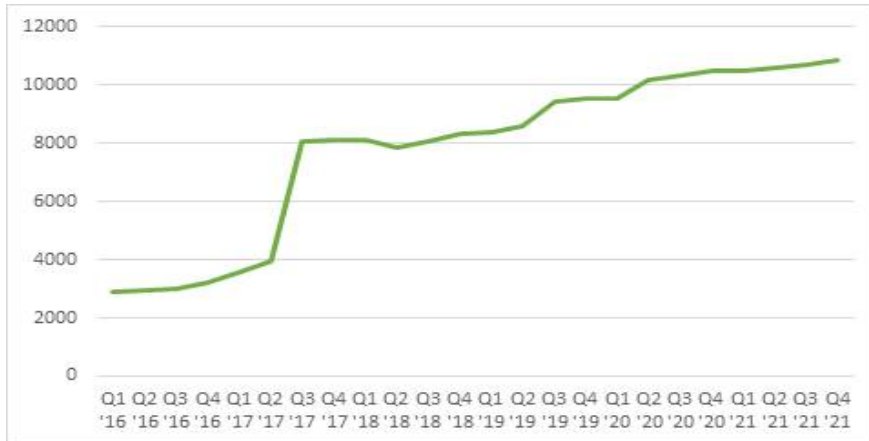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5년 연속 두 자릿수 기록

- 2017년 외환자유화 이후 환율 상승세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봉쇄 조치에 따른 소비 둔화, 환율 상승폭 둔화(2019년 13.9%에서 2020년 10.1%로 하락) 등으로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14.5%)에 비해 12.9%로 다소 둔화되었음.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8%로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되었으나, 대외 물가상승 압력, 국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내수 회복 등으로 5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함.

국내경제

[그림 1] 숨화 환율 변동(2016~21년)

단위: 숨/달러



자료: EIU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라 2020년 기준금리를 4월 및 9월에 각각 16%에서 15%, 15%에서 14%로 인하하였으나, 2022년 3월에는 물가 상승 및 환율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17%로 인상하였음.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확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 부문, 보건·의료 부문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대로 재정수지가 2019년 GDP 대비 0.6%의 흑자에서 2020년에는 GDP 대비 -2.5%의 적자로 악화되었음.
 - 2020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되어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되고 부가가치세율도 20%에서 15%로 인하되었으며, 개인소득세, 재산세 등 전반적인 조세 부담이 완화된 반면, 법인소득세율은 12%에서 15%로 인상됨.
-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가 지속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6%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9월 정부는 최저임금, 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평균 10% 인상하고,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재정 확장을 통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 2021년 10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광업 부문 세율¹⁾ 인하(석유 및 가스 각각 20% 및 30% → 10%, 금 및 구리 10% → 7%, 텅스텐 10.4% → 2.7%, 우라늄 10% → 8%) 등 광업 부문 과세체계 변경을 2022년 1월부터 도입하는 법령에 서명함.

1) subsoil use tax(광물자원 등 채굴에 따른 세금) rate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1,478	-3,593	-3,366	-3,007	-4,810
경상수지/GDP	2.4	-6.8	-5.6	-5.0	-7.0
상 품 수 지	-2,215	-6,866	-7,291	-6,216	-8,904
상 품 수 출	10,162	11,386	13,899	12,832	14,142
상 품 수 입	12,377	18,252	21,190	19,048	23,046
외 환 보 유 액	14,043	12,441	12,843	14,687	14,189
총 외 채	15,580	18,383	25,967	35,950	40,398
총외채잔액/GDP	25.5	34.9	43.4	60.0	58.4
D.S.R.	12.6	12.7	13.5	21.2	32.8

자료: IMF, EIU

2018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품수지 적자를 이전소득수지 흑자로 일부 보전하는 구조로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수지 적자의 절반 수준

- 2018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규모 감소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대비 하락함('19년 -5.6% → '20년 -5.0%).
- 투자와 소비 증가에 따른 중간재와 자본재 등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20년에는 수출입 규모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수입제한 정책에 따른 수입감소폭이 수출감소폭을 상회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2020년 수출에서는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과 대 러시아 가스 수출 감소 등으로 에너지 수출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 금 국제가격 상승으로 금 수출액이 증가하고 금 수출비중도 2020년 전체 수출의 43.7%로 전년(32.9%)보다 상승하였음.

* 금 수출비중: 32.3%('17) → 26.6%('18) → 32.9%('19) → 43.7%('20) → 29.2%('21)

- 2021년에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교역규모가 전년 319억 달러에서 372억 달러로 16.6% 증가하였으나, 수출증가율(10.2%)을 능가하는 수입증가율(21.0%), 주요 수출품인 금 수출 감소, 정부의 투자 확대에 따른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 추세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금 수출액: 32.6억 달러('17) → 29.1억 달러('18) → 49.2억 달러('19) → 58.0억 달러('20) → 41.1억 달러('21)

-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등 추진에 따른 서비스 수입 증가에 따라 서비스수지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이전소득수지는 해외이주 노동자 송금 등으로 50~60억 달러 내외 수준의 흑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대외거래

- 2021년 기준 주요 수출품은 금 등 귀금속(수출비중: 32.1%), 면사·원면 등 면류(13.7%), 구리류(8.3%)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보일러 및 기계류(수입비중: 18.1%), 일반차량(8.8%), 철강(6.9%) 등임.

[그림 2]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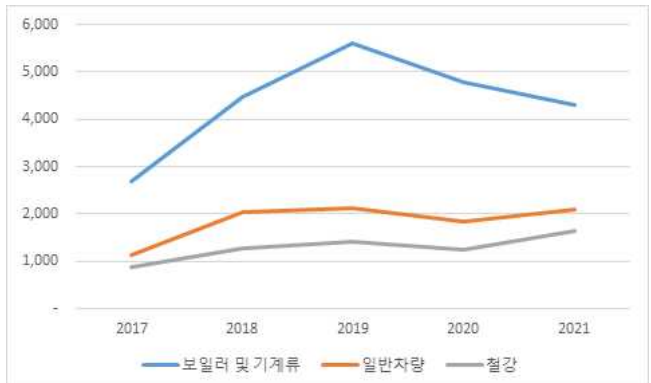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그림 3]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 2021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12.4%), 러시아(12.1%), 터키(11.6%), 카자흐스탄(7.3%)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러시아(22.4%), 중국(20.4%), 카자흐스탄(11.4%), 한국(7.3%)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함.

[표 2] 주요 수출상대국 및 상품 수출규모

국가명	수출액(억 달러)
전체	140.9
중국	17.4
러시아	17.0
터키	16.4
카자흐스탄	10.3
키르기즈스탄	7.8

주: 2021년 기준.
자료: UN.

[표 3] 주요 수입상대국 및 상품 수입규모

국가명	수입액(억 달러)
전체	238.9
러시아	53.5
중국	48.8
카자흐스탄	27.1
한국	17.4
터키	16.6

주: 2021년 기준.
자료: UN.

외채상환능력

외채규모 지속 증가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다소 악화

- 우즈베키스탄의 외채지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정부의 경제전반에 대한 투자 증대와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자금 차입 등으로 인해 대외부채가 증가하였음.
- 총외채규모가 2017년 155.8억 달러에서 2021년 404.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7년 103.8%에서 2020년 223.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수출 증가에 따라 215.2%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7년 12.6%에서 2020년 21.2%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도 32.8%로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됨.
- 단기외채 증가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019년 5.3%에서 2021년 20.8%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금 보유액의 증가로 대외준비자산 증가

- 금 보유액의 증가로 전체 대외준비자산²⁾ 규모는 2020년 말 349.0억 달러에서 2021년 말 351.4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은 2021년 말 기준 세계 13위 수준으로, 2020년 말 202.2억 달러에서 2021년 말 209.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은 나보이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Muruntau 금광 채굴 등에 힘입어 2021년 기준 세계 10위의 금 수출국임. 금 생산량은 2021년 100톤으로 전년(101톤)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

[표 4]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금 보유액 및 보유규모 추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 보유액(백만 달러)	14,034	14,641	16,329	20,217	20,950
금 보유규모(백만 온스)	10.8	11.4	10.8	10.7	11.6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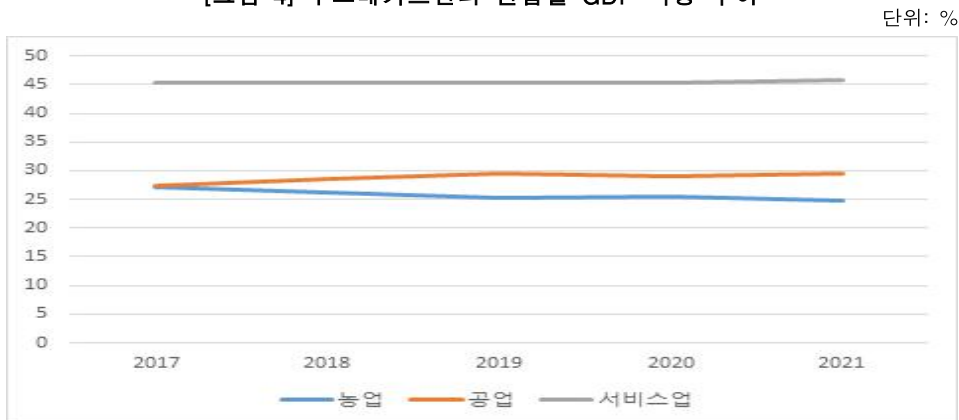
2) international reserves: stock of foreign reserves plus gold(national valuation)

구조적취약성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발달이 부진하며 일부 부문에 편중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21년 기준 전반적으로 산업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GDP의 24.7%), 공업(29.6%)과 서비스업(45.7%)의 비중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식료품, 섬유, 자동차 등이 제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금속산업 발전정책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및 기술협력 등을 통해 금속제품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기계, 화학 등 다른 제조업 분야의 생산 비중은 여전히 낮아 전반적으로 산업다변화가 다소 부진한 상황임.
-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제조업의 부문별 비중은 금속 및 가공(28.2%), 섬유제품 및 의복(15.3%), 식료품(13.9%), 자동차(11.1%) 등 4개 부문이 68.5%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4]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별 GDP 비중 추이



자료: EIU

해외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 국내 일자리의 부족 등으로 대규모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해외에 취업하고 있음.³⁾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이주 노동자의 국내 송금액은 2020년 기준 GDP의 11.6%로 국내경제가 해외이주 노동자의 송금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액은 2020년 60억 달러에서 2021년 81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한편, 세계은행에 의하면 2022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액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5] GDP 대비 해외로부터의 송금 비중이 높은 CIS 국가

단위: %

연도	2020년 GDP 대비 해외송금 비중	2021년 해외송금 중 러시아 비중 ^{주)}
키르기즈	31.3%	83%
타지키스탄	26.7%	58%
우즈베키스탄	11.6%	55%

주: 2021년 1~9월 기준

자료: EURASI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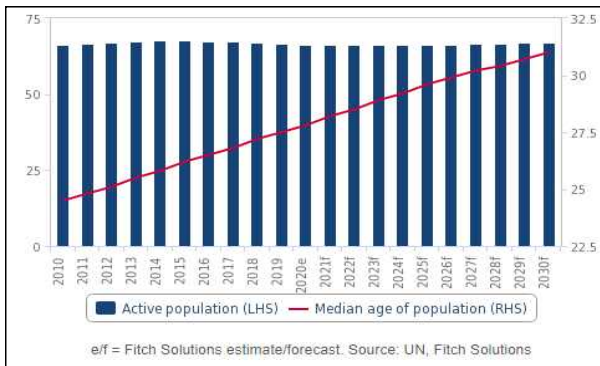
3) 우즈베키스탄 이민당국(Agency for External Migration)은 해외이주 노동자 규모를 2020년 기준 약 170만 명(15~64세의 생산 가능인구 2,168만 명 대비 7.8%, 2019년 기준 260~300만 명)으로 추정함.

성장잠재력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나 높은 인구증가율로 풍부한 인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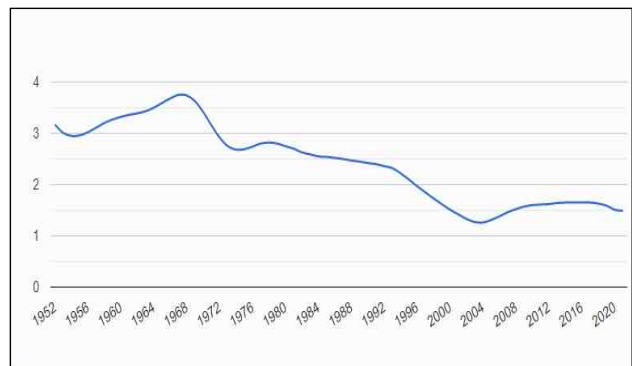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인구증가율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456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5년의 3,102만 명과 비교해 354만 명이 증가한 것임. 세계 인구는 2015년 73.8억 명에서 2020년 77.9억 명으로 5.6% 증가한 데 비해,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2015년 3,102만 명에서 2020년 3,391만 명으로 9.3% 증가함. 2020년 기준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23.2%,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0.9%,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5.9%를 기록하고 있음.⁴⁾
- 또한 2020년 기준 중위연령(median age)이 27.8세로 젊은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향후 경제성장 지속을 뒷받침하는 잠재력의 근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5]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중위연령



자료: UN, Fitch Solutions

[그림 6] 우즈베키스탄 인구증가율



자료: <https://worldometers.info>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과 금,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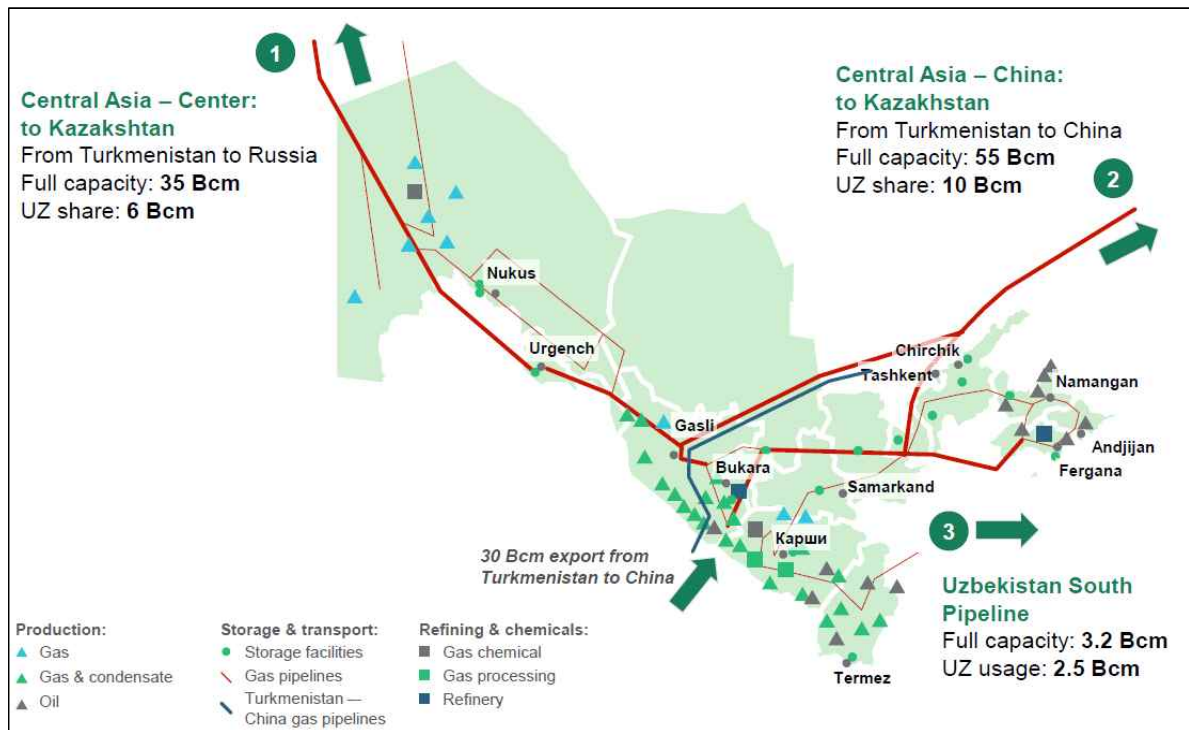
- BP 자료⁵⁾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말 기준 천연가스 0.8조 m³, 원유 6억 배럴 등의 에너지 자원과 금, 우라늄 등을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대 러시아 가스관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중앙아시아 가스관 개통(2009.12월)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부터 동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개시하였음.
- BP 자료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1.2%에 이르는 471억 m³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으며, 이 가운데 430억 m³를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수출하였음. 천연가스 수출액은 2019년 23.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천연가스 국제수요 위축으로 인해 5.9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2021년에는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7.2억 달러로 다소 증가하였음. 2021년 기준 대 중국 수출 비중이 8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 러시아 수출 비중은 10.6%로 감소세에 있음.
-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은 2021년 10월 천연가스 자원의 단순 수출을 줄이고, 천연가스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4) CIA The World Factbook.

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성장잠재력

[그림 7] 우즈베키스탄의 대 러시아 및 대 중국 가스관



자료: Uzbekistan's energy sector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ctober, 2018.

정책성과

ICT 산업 부문의 발전 성과 가시화

- 우즈베키스탄의 ICT 산업은 최근 전자정부와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이용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특히 전자정부 추진에서 성과를 거두어 UN의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E-Government Survey 국가별 순위가 2003년 174위, 2008년 109위에서 2020년에는 87위로 크게 상승하였음.
-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T 부문 발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인도 소프트웨어 기술파크(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와 협력하여 2019년 7월 타슈켄트에 IT 파크를 설립하였음.
- IT 파크에서는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IT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타슈켄트 IT 파크에 35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4천여 명의 기술자들이 고용되어 있음.
- 2021년 5월 우즈베키스탄 경제연구개혁센터 발표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은 2016~20년 간 ICT 서비스 부가가치 2배 증가, ICT 분야 투자 4배 증가, 이동통신 가입자 20% 증가 등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풍부한 면화 생산을 기반으로 한 섬유산업 육성 정책

- 섬유산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기준 인도, 미국, 파키스탄, 터키에 이어 세계 5위의 면사·원면·면직물 수출국임. 면사·원면·면직물은 2021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의 13.7%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이며, 중국, 터키,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8~21 산업구조 개혁, 현대화, 다각화 방안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섬유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 기존의 원면 위주의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의류제품 수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부터 목화 생산·판매 목표할당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2020년 6월 가공하지 않은 원면의 수출을 제한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국내에서 가공 후 중간 또는 완제품 형태로 수출할 것을 장려함.
- 우즈베키스탄에서 면방직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은 자체적으로 면화 재배에서 봉제의류 등의 완제품 생산까지 아우르는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임.
- 또한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2020~24년 섬유산업 발전전략'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섬유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섬유 부문의 생산량을 4.6배 증대시키고 2025년에는 섬유수출액 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섬유 부문의 수출규모는 2011년 6억 6,000만 달러, 2016년 11억 달러, 2020년 19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였음.
- 한편, EU 일반특혜관세제도 상 우즈베키스탄의 수혜국 지위가 2021년 4월 GSP⁶⁾에서 GSP+로 변경됨에 따라 완전 무관세 품목이 기존 3,000여 개에서 6,200여 개로 증가함.

정책성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2030 녹색경제' 전략 추진

-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ADB, 세계은행의 지원 등을 통해 2023~26년 중 3.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나보이 주에 아랍에미리트의 MASDAR Clean Energy사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지작 주, 사마르칸드 주 및 수르한다리아 주에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이후 부하라 주, 나망간 주, 호레즘 주 등에도 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

[표 6] 우즈베키스탄의 연도별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계획

연도	주요 내용
2023년	○ 총 1.1GW 규모의 4개 태양광 발전소 가동 (나보이 주, 지작 주, 사마르칸드 주, 수르한다리아 주)
2024년	○ 총 0.9GW 규모의 5개 태양광 발전소 가동 (부하라 주, 나망간 주, 호레즘 주, 카슈카다리아 주, 페르가나 주)
2025~26년	○ 총 1.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가동

- 한편, 풍력발전 관련 UAE 기업이 추진하는 나보이 풍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계획되는 등 2023~26년 중 4.0GW 규모의 풍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임.
- 2020년 6월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력망공사와 MASDAR Clean Energy사 간에 2024년 나보이 지역에 500MW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바 있음. 앞서 2020년 3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ACWA Power 간에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나보이와 부하라에 1,0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2개를 건설하는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력망공사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였음.⁷⁾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2019년 10월 대통령령으로 "2019~30 녹색경제로의 전환" 전략을 추진 중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였고 2018년 의회에서 이를 비준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의 10%로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30 녹색경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9년에 발전원별 전력 생산비중을 2019년 화력(85.9%) 및 수력(14.1%)에서 2030년 화력(51.5%), 태양광(17.1%), 수력(13.0%), 풍력(10.2%), 원자력(8.2%)로 다원화하여 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풍력 등의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힘.
- 2021년 9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목표를 태양광은 5GW에서 7GW로, 풍력은 3GW에서 5GW로 증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에 따라, 2030년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태양광·풍력 비중은 27.3%에서 36.0%로 상향될 예정임.

7) <https://www.acwapower.com>

정치안정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021년 10월 대선에서 재선 성공,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 유지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2016년 12월 대선에서 약 89%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으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2021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으로 재선에 성공함.
-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관위는 개표 결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80.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함.

대통령 집권 2기에는 경제 개혁·개방 외에도 사회 부문 개혁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 2017~21년 발전전략의 중점목표 내용에는 '정부와 사회의 민주주의 확대', '법치 보장과 법제도 시스템 개혁' 등이 포함되었으며, 정치개혁을 통해 다당제 확립, 부패 척결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의 해임 등 강력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음.
- 2020년 초 정부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사전 선거운동 시에 의원, 공무원, 종교지도자, 안보기관 직원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치중립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개혁을 통해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전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목표로 함.
- 대통령의 집권 1기에는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을 통해 외형적 성장을 추구한 데 비해, 집권 2기에는 2022~26년 발전전략에서 경제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도 '자유로운 시민사회 건설', '공정한 사회정책·인재육성'을 포함하는 등 정책방향의 중심이 사회 부문 개혁으로 다소 이동할 전망이다.

2020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

-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 중의 하나로 선출되어, 3년 임기 동안 유엔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음.
- 한편, 국제인권위원회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우즈베키스탄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 승인 등을 비롯한 보다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인권 진전으로는 정부의 면화 강제노동 관행 폐지 선언과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인사들의 석방 등이 있으나, 개인이나 조직의 공개적인 반정부 활동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음.

사회안정

사회 전반의 부패 해소 및 언론자유 증진 등의 성과는 미흡

-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언론자유에서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보고서(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180개국 중 2020년 146위, 2021년 140위에 그쳐 부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2022년 세계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도 180개국 중 133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음.

높은 청년실업률은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

- 국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률은 2019년 5.9%에서 2020년 7.0%로 상승하였음. 특히 2020년 기준 508만 명(인구의 16.6%)으로 추정되는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9년 13.3%에서 2020년 15.4%로 상승하여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대두됨.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용 지원, 청년기업가 지원, 청년 대상 직업교육 등을 확대할 것을 지시함. 또한 정부는 2021년 5월부터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과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의 30%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함.

[그림 8] 우즈베키스탄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World Bank.

ESG 신용영향점수는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Credit Impact Score)를 전체적으로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에너지 산업 위주에서 의류, 농산물, 금 등을 포함하여 여타 수출상품으로 경제다변화를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수자원 부족 및 오염, 토양의 높은 염분 농도 등이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 및 섬유 부문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사회) 인구 구조 등은 긍정적이거나, 교육, 주택, 보건 등의 사회적 인프라 미흡 등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어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정부의 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료주의, 부정부패,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 만연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러시아 및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되,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균형외교 정책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구소련 지역의 경제통합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옵저버 회원 가입(2020.12월)을 통해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전임 카리모프 행정부와 달리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외교·경제 협력을 긴밀히 하는 동시에 러시아 주도의 EAEU 가입을 추진해 왔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3년 후 정회원 가입을 통해 에너지, 자동차, 섬유, 농업 등 중점 산업 부문에서 EAEU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EAEU 가입을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들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섬유, 자동차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고 전체 해외노동자 송금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러시아로의 이주노동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국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참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협력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중국은 러시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제2의 교역대상국으로, 우즈베키스탄 수출의 12.4% 및 수입의 20.4%를 점유하고 있음. 또한 2021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가스 수출액(722백만 달러)의 80.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이외에도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개발은행이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내의 경제특구 진출 등 제조업 부문의 투자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WTO 가입 추진 등 서방과의 협력 확대

- WTO 설립이 추진되던 1994년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2005년 가입 협상을 중단한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미르지요예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경제개방 정책에 따라 가입 협상을 재개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까지 WTO 가입을 위한 작업반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뒤 협상을 중단한 바 있으며, 2018년 가입 협상을 재개하여 2020년 15년 만에 제4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음. 한국, EU, 미국 등이 위생 및 식물위생 검역조치(SPS)⁸⁾, 무역기술장벽(TBT)⁹⁾, 지적재산권 등 WTO 가입을 위한 주요 협상 부문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음.
- 2020년 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제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세관 절차의 단순화 및 조화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가입 법안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WTO 가입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됨.
- 2021년 1월 우즈베키스탄은 미국,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투자 파트너십(Central Asia Investment Partnership)'을 개시하고 참여함.
-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가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인프라 투자, 민간 부문의 발전 등을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합의하였음.

8)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9)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

- 2021년 9월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억 4,900만 달러, 중장기 40억 9,540만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단기 70만 달러로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연체비율: 0.02%(‘18.9월) → 0.03%(‘19.9월) → 0.01%(‘20.9월) → 0.02%(‘21.9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2. 1)	5등급(2021. 1)
Moody's	B1 (2021. 7)	B1 (2019. 2)
Fitch	BB- (2022. 4)	BB- (2021.10)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기존의 신용등급 유지

-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에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이후 현재까지 기존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21년 7월 우즈베키스탄의 등급을 B1으로 평가하고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함.
- 한편, Fitch는 2022년 4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다변화된 상품 수출 기반 및 국제기구 등의 공적지원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BB- 등급 및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 3사는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다변화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1.9%)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 및 투자 회복, 서비스업 호조 등으로 7.4%로 상승함.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5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음.
- 정부의 경제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와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자금 차입 등으로 외채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다소 저하되었음. 한편, 금 보유액의 증가에 따라 대외준비자산 규모는 2020년 말 349.0억 달러에서 2021년 말 351.4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제조업의 부진이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정부는 섬유 및 자동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등을 통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80%의 득표율을 통해 2021년 10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22~26년 발전전략에서 경제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도 '자유로운 시민사회 건설' 및 '공정한 사회정책·인재육성'을 포함하는 등 정책방향의 중심이 사회 부문의 개혁으로 다소 이동할 전망이다.